

# 사무용 수납가구의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sign of Office Filing System Furniture

신 화경(Shin, Hwa-Kyoung)

상명대학교 생활환경학부 소비자주거학전공 교수

하 숙녕(Ha, Sook-Nyung)

상명대학교 생활환경학부 소비자주거학전공 강사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사무환경의 변화와 사무가구의 조건

- 2-1 사무환경의 변화
- 2-2 사무가구의 조건

## 3. 사무용 수납가구 디자인 특성

- 2-1 lateral file의 디자인 특성
- 2-2 vertical file의 디자인 특성
- 2-3 bookcase의 디자인 특성
- 2-4 cabinet의 디자인 특성
- 2-5 overhead storage의 디자인 특성
- 2-6 pedestal의 디자인 특성

## 4. 결론 및 제언

## 5. 참고문헌

### (要約)

정보화에 따라 수납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수납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최근의 사무환경 변화에 발 맞추어 국내·외 사무용 수납가구의 디자인 특성 및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무환경 디자인에 맞는 가구의 조건을 정리하고, 현재 우리 나라에서 시판되고 있는 국내·외 사무용 수납가구의 디자인 특성영역을 분석하여 사무환경에 대응할 수납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대상은 사무용 수납가구 중 현재 일반화되어 있는 lateral file 등 6가지 수납가구를 대상으로 국내·외 사무용 가구의 카다로그를 분석하였으며 사무용 수납가구의 디자인 특성으로는 수납가구의 크기, 형태, 색, 재료, 손잡이, 수납방법, 이동성, 융통성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현재 시판되는 수납가구의 디자인 특성분석결과에 따른 미래의 수납가구의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변화하는 사무환경에 맞춰 고정정보보다는 이동이 가능한 가구와 함께 위치변동이 자유로운 수납가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수납가구의 크기는 서로 다른 제품과 혼합사용시 공간의 통일성 및 공간 사용의 융통성을 주는데 유리하므로 일정한 모듈의 규격화된 디자인이 필요하다.

-무채색계열과 정해진 나무색상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형태에서, 앞으로는 변화하는 사무환경과 수납가구의 디자인에 맞춰 다양한 색상의 개발이 요구된다.

-수납가구의 손잡이는 기능적인 면 외에도 다양한 이미지 변화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손잡이의 디자인 변화가 필요하다.

-수납구분방법은 대부분이 선반과 서랍식으로 구분되었고 서랍식인 경우 기능이 정해진 내부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나, 서랍의 내부와 외부에서의 다양한 수납방법과 디자인이 필요하다.

### (Abstract)

Against the projection that the volume of filing would be drastically cut in the Information Age, the needs for filing in this age increases gradually. In this respect, it is critical to study the design of office filing system furniture. Through this study, we could find out what shall be the major requirements for office filing system furniture. This study would also provide important raw data for developing more efficient and more satisfactory office filing system furniture.

Subject for this study includes 6 representative filing system furniture including a lateral file cabinet.

For the design analysis, we used catalogues of foreign and domestic office furniture, particularly filing system furniture. The analysis is classified into the following six categories such as size, shape, color, material, handle, and filing method, mobility, flexibility, and so on.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office furniture in the market, requirements of furniture fit for office environment are found to be as follows.

-Instead of the fixed-type furniture, movable furniture is more adaptable to the ever-evolving office environment.

-Design the office furniture in accordance with a standardized module would provide a more unity and diversity of arrangement in space particularly when it is arranged with other furniture.

-Development of more diverse color, which ranges from achromatic color to wooden color to other various colors, is more favored in the ever-changing office environment.

-As the grip provides a variety of image to the furniture let alone its function, its development is required to be more diverse and more conforming to the design of the furniture.

-The filing methods in general are with drawer and shelf, among which the drawers design is usually fixed. However, under the evolving office furniture environment, the design of the drawer, both interior and exterior, shall be more diverse and flexible.

### (Keyword)

filing system furnitures, changed office environment, volume of filing, foreign and domestic office furniture

# 1. 서 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기업이나 관공서 등 모든 조직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법은 소프트웨어(Software)적인 면과 하드웨어(Hardware)적인 면이 있을 수 있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정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제도 및 Process 등은 중요한 요인(Factor)이다. 특히, 물리적으로 정보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즉 업무의 신속성 및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보의 축적·보관하는 수납시스템은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오늘날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정보화된 사회구조 속에서 우리의 사무환경은 기존의 사무가구, 특히 수납가구의 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추측들을 정보화 사무공간에 대한 인식으로 받아들여졌었다. 이것은 정보화의 진전으로 온라인(On-line)으로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동시에 상호 공유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종이 없는 사무실(Paper-less Office)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의 진전은 오피스에 있어서 취급하는 정보의 양을 급증시키고 문서 없는 정보의 공유는 심리적으로 또는 시스템적으로 안정감을 저하시켜 오프라인(Off-line)상의 정보 공유를 위한 문서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정보의 온라인상 공유에도 불구하고 종이의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으며<sup>1)</sup> 이들을 정리 보관하여 수납할 가구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또한 종이 이외에 정보 보관을 위한 새로운 정보 매체가 도입되므로 종이를 이용하는 정보 매체가 준다고 해도 여전히 전산용품을 이용한 정보 보관이 이루어지므로 정보의 양과 매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보관하고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는 수납시스템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변화하는 사무환경과 사무환경 디자인에 맞는 가구의 조건을 정리하고, 시판되는 국내·외 사무용 수납가구의 디자인 특성을 분석하여 사무환경에 대응할 수납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사무환경 변화와 사무가구 디자인 조건 정리를 위해서 관련 문헌과 web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무환경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 정리하였으며 수납가구의 디자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외 사무용 가구의 카다로그를 분석하였다.

국내·외 사무용 수납가구의 디자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90년대 이후부터 최근자료들을 위주로 조사하였으며, 국내사무용 수납가구로는 보르네오, 한샘, 동양강철 등 16개 업체의 39개 카다로그를 조사하였고, 국외의 사무용 수납가구로는 Steelcase, Humanmiller, Hone, Kruger 등 22개 업체의 38개 카다로그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분석자료들은 실제 사용중인 수납가구의 사진자료들로서 모두 화보를 중심으로

카다로그상에 제시된 자료를 이용하였으므로 인쇄상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한계점을 지닌다.

수납가구의 디자인 특성 분석 내용으로 크기, 형태, 색, 손잡이, 수납방법, 걸레받이, 배치유형, 사용자 접근방법, 이동성 등이며 크기에는 폭과 길이, 높이를 조사하였으며, 형태에는 상판과 앞면, 그리고 옆면의 형태를 조사하였다. 색은 각각의 색상과 명도, 채도를, 재료는 무늬목과 금속재 그리고 라미네이트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손잡이는 형태, 위치, 색상으로 구분하였으며, 수납방법으로는 선반식과 서랍식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외에도 걸레받이의 유무, 수납가구의 배치유형, 각 수납가구로의 사용자 접근방법과 이동성, 융통성, 조절가능성, 복합 가능성 및 전시성의 유무 등으로 나누어 분석을 하였다.

디자인 특성에 대한 분석들은 디자인 분야를 전공한 3인의 평정자의 검증을 받았다. 분석시 평정자간의 디자인 특성 분석유목에 관한 일치도가 중요하므로 평정자간 분석결과와의 일치도로 분석유목에 관한 신뢰도 검증을 하였다. 1차 분석 결과 일치도는 70%였으며 일치가 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분석유목을 수정하거나 모호한 항목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분석 기준을 설정하여 최종 분석유목을 결정하여 분석하였다.

## 2. 사무환경의 변화와 사무가구의 조건

### 2-1. 사무환경의 변화

오늘날 산업구조가 변화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선진국에서 급속히 발전되고 있는 기술혁신의 도입으로 기업경영에 새로운 움직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각 기업들은 사무실의 개념이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무 기능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하드웨어인 사무실의 구조와 환경을 개선시켜야 하고, 과거에 해왔던 단순한 사무기기의 배치가 아니라 변화하는 업무형태를 뒷받침하면서 창조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장소로서의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무실을 인식해야 하는 전환기에 놓여져 있다.

현대 사무공간이 갖추어야 할 조건 중에는 팀(team), 교환(exchange), 이동성(mobility)이라는 3가지의 새로운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다. 사무공간 안에서 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팀 활동을 고무하기 위해 개인 작업공간을 최소화 줄이고 남은 공간을 팀의 공통공간으로 구성하게 하였으며, 사무환경 변화의 움직임을 일으키게 한 새로운 도구(기술적 자원 시스템)로 인한 정보라는 자원을 교환하기 위한 사무공간을 탄생시켰다. 또한 이동성을 위한 사무공간으로 개인이 소유하는 공간이 아닌 때에 따라 바뀌는 공동 소유물이 되어 불특정다수 사용자를 위한 상호 기능적 형태가 탄생하게 되었다.2) 이것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팀을 전개시키는 사무공간의 배열로써 필요시마다 이동할 수 있도록 매시간, 매일, 또는 일정기간마다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현대의 사무공간은 사회와 서로 관련되면서 10년을 주기로

1) file://A:W제지.htm

2) 한영호, 실내디자인의 창의적 공간구성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02, 30호

새로운 전개를 보이고 있다.)

즉, [표 1]과 같이 1990년대 이후 정보화사회로 가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있어 왔는데 사무공간의 변화를 재촉하는 요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OA기기를 적용한 사무자동화(Office Automation)이며 둘째는 정보화에 따른 사무환경의 질적 변화이다. 결국 효율성과 기업의 이윤이 제일의 가치로 인정하던 시대에서 쾌적성과 개인의 중요성으로 가치기준이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사무공간의 개념 변화

	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안전성	위험방지	인간공학	심리학적 배려	건강유지, 관리	
경제성	내구성	생산성	효율의 향상		
기능성	고속화	다기능화	분산처리화	네트워크화	
요구되는 기능	효율성	노동생산성	지적생산성향상	창조성	가치창조의장
	다양성	차별화	독자성 표현		
	유연성	변화에의 대응	변화의 창조		
			쾌적성	인간성	생활문화
				문화성	국제성
오피스 태양의변화	정보 처리장	생산효율의 추구	OA기기와의 공존	전통자원으로 인식	인간과 자연의 조화
사회경제의 변화	경제의고도성장	지상정기 유통파동	OA회의 추진기 (통신의 사유화)	고도정보화사회	지구환경보호
	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출처: 송인호(1995). 오피스환경디자인. 조형사. p.22

1980년대에 들어와 OA화에 의해 OA기기와의 공존을 요하는 오피스 환경이 본격적으로 요구되면서 최근 고도 정보화 사회, 국제화사회에 있어서 한층 인텔리전트화된 장소로서 등장하였다. 이는 사무직 근로자의 생산성이 기업 이윤의 큰 부분을 차지하며 개인의 쾌적성과 창조적 활동이 곧 기업의 생산성에 직결된다는 인식을 공유한 결과이다.

## 2-2. 사무환경 디자인의 경향에 맞는 사무가구의 조건

사무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사무공간의 가구 또한 그 변화의 흐름에 맞게 변화가 요구되어지고 있다.

미래의 사무환경을 위한 사무가구의 주요한 조건은 '융통성(flexibility)', '이동성(mobility)', '조절가능성(adaptability)', '복합기능성(multi-function)', '전시성(display)'이다.<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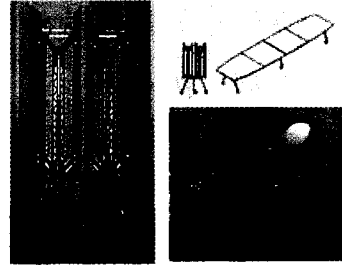
융통성(flexibility)은 가구를 상황에 맞게 변화시킬 수 있거나 재배치 할 수 있는 기능을 뜻한다. 현재와 미래에 변화되어가고 있는 사무환경은 개인과 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중요시된다. 정규적인 팀구성원의 모임 외에도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팀의 구성원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함께 일을 하

1) 송인호, 오피스환경디자인, 조형사, 1995

2) 이종란, 사회적 변화에 따른 사무실 실내환경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002, 28호

가 다시 개인의 업무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사무가구는 개인 업무를 할 때와 팀 업무를 할 때에 적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야한다.

이동성(mobility)은 필요에 따라 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기능을 뜻하는데 위에서 언급한 융통성(flexibility)있는 가구의 필수 조건이 이동성(mobility)라 할 수 있다.



[그림 1] 이동성있는 회의용 테이블의 예

상황에 따라 팀워크(teamwork) 이나 개인 업무에 맞게 가구를 재배치하려면 가구가 쉽게 이동 될 수 있어야한다.<sup>3)</sup>

조절가능성(adaptability)이란 인간공학적인 융통성을 뜻하는데 사용자의 신체에 적당하게 높이나 크기 또는 각도가 조절될 수 있는 기능을 뜻한다.<sup>4)</sup>

현재와 미래에 변화되어 가고있는 사무공간에서 가구는 오랫동안 한 개인만이 사용하는 소유물이 아니라 때에 따라 사용자가 바뀌는 공동 소유물이 되어가고 있다. 사무용 가구는 업무 특성이나 팀의 편제 개편에 의해 바뀌는 사용자의 신체의 크기나 특성 외에도 업무의 순서나 특성에 맞게 조정되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복합기능성(multi-function)은 수납가구가 수납가구이외에 가구종류에 따라 작업면의 제공 및 배선 시스템의 수용 기능이 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건물의 일부로서 고정적인 것으로서 시설되었던 배선체계는 OA기기가 보급됨에 따라 고정적인 것으로서는 융통성 측면에서의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가구 자체에 배선 기능의 보완이 요구되어지게 되었다. 수납가구의 경우 이 가구의 일부 구조를 이용하여 상하 좌우 방향으로 배선처리가 용이하게 되었으며, 또한 앞으로의 OA대용 가구는 각각의 기능을 살려서 배선처리가 가능해야 하며, 건물과의 적합성, 기능분담처리 등의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전시성(display)은 VDT(video display terminal) 작업자를 기준으로 작업자의 다양한 자료 정리를 위한 계시가능성 뿐 아니라 자료의 식별이 용이하게 전시해 놓는 특성을 의미하며 이는 펼쳐 놓고 사용하는 일부 신세대들의 수납 행태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신세대들의 작업패턴에 대한 배려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sup>5)</sup>

3) 민찬홍, 후기산업사회의 오피스 변화에 관한 연구, 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1995

4) Tweedy,D.B, Office space Planning and Management, Quorum Books, Greenwood Press, INC. 1986

5) Woodson, Wesley E, Barry Tillman & Peggy Tillman, Human Factors Design Handbook, MacGraw-Hill, INC., 1992

### 3. 사무용 수납가구 디자인 특성

각 사무용 수납가구별 분석대상의 수는 아래 [표 2]와 같다. 그 중 credenza와 side cabinet은 비교대상 분석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관계로 제외시켰다.

[표 2] 각 사무가구의 분석대상

가구 종류	국내		국외		계	
	빈도	%	빈도	%	빈도	%
lateral file	8	14.8	46	85.2	54	100.0
vertical file	14	53.8	12	46.2	26	100.0
bookcase	34	79.1	9	20.9	43	100.0
cabinet	50	65.8	26	34.2	76	100.0
credenza	19	79.2	5	20.8	24	100.0
side cabinet	10	90.9	1	9.1	11	100.0
overhead storage	33	47.1	37	52.9	70	100.0
pedestal	49	59.0	34	51.0	83	100.0

사무용 수납가구의 디자인 특성분석 내용은 아래의 [표 3]과 같다.

[표 3] 사무용 수납가구 디자인 특성 분석항목

구분	내용	구분	내용
크기	폭, 길이, 높이	사용자 접근방법	전면접근, 전·후면 접근
형태	상판, 앞면, 옆면	움동성	유·무
색	색상, 명도, 채도	이동성	유·무
손잡이	형태, 위치, 색	조절가능성	유·무
수납방법	선반식, 서랍식	복합가능성	유·무
재료	천연무늬목, 금속재, 라미네이트 등	진시성	유·무
걸레받이	유·무	배치유형	벽면에위치 팀과 팀간의 구분(퍼티션기능) 책상 밑, 책상 옆

손잡이 형태		상판 모서리 형태	
1.		1.	
2.		2.	
3.		3.	
4.		4.	
5.		5.	
6.		6.	
7.		7.	

[그림 2] 손잡이 및 모서리 형태

#### 3-1. LATERAL FILE 의 디자인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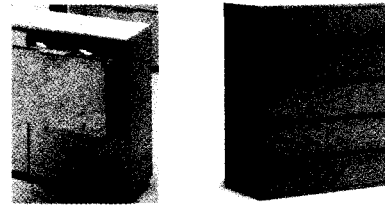
lateral file은 국내보다 국외 제품에서 많이 소개되고 있었으며, 배치유형을 벽면에 위치, 팀과 팀간의 구분, 책상 밑, 책상 옆에 위치로 나누어 보면 국내제품의 경우 책상 옆이나 벽면

에 위치하는 형태가 37.5%로 가장 많았고, 국외제품의 경우에는 lateral file 배치유형을 보여주는 것으로는 팀과 팀간의 구분을 위한 간막이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lateral file의 크기로는 국내제품의 경우, 높이는 최소 1100~1565mm 범위에서 제작되었으며, 깊이는 424~465mm, 폭은 800mm와 900mm가 있었는데, 그 중 800mm가 가장 많이 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제품은 회사별 크기가 상이하게 제작되고 있었으며 같은 회사제품내에서도 시리즈별 제품들의 크기에 차이가 있었다. 국외제품은 최소 163(한단)~1660mm 중에서 1030mm와 1630mm의 높이가 14.3%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깊이는 최소 410~610mm, 폭은 760~2340mm의 범위 중에서 760mm가 43.5%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제품의 경우 국내제품의 한 회사에서 제품 시리즈별로 차이가 나는 것과는 달리 생산하고 있는 수납가구류의 규격이 회사별로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었다.

lateral file의 앞면과 상판의 형태를 살펴보면 앞면은 모두 flat한 형태였으며 상판은 국내·국외 제품 모두 본체와 일치형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면이 목재인 경우 상판이 앞으로 나온 형태가 주로 사용되었으나, 금속재와 solid 라미네이트의 경우에는 본체와 일치하는 형태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상판과 옆면의 모서리 형태는 모두 직각으로 각이진 형태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국외  
[그림 3] lateral file의 앞면과 상판의 형태

색상으로는 국내·국외제품 모두 무채색 계열이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속재와 solid 라미네이트의 경우에는 유채색보다는 주로 무채색 계열이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목재일 경우 주황계열이 가장 많았다. 무채색을 사용한 경우 명도 단계는 국내제품의 경우 white가 66.7%로 가장 많았고, light gray가 33.3%로 나타났다. 국외제품의 경우에는 light gray가 45.5%로 가장 많았고, dark gray가 31.8%로 나타났다. 이를 마감재별로 비교해 보면, 금속재인 경우 light-gray와 dark-gray가 많았으며, solid 라미네이트의 경우에는 white와 light-gray가 주로 사용되었다. 국내의 유채색 제품의 경우 주로 tinted-white가 50.0%로 가장 많았고, 국외제품의 경우에는 half-tone, dark-tone이 각각32.0%로 많이 사용되었다.

사용자 접근방법은 국내·국외 모두 정면으로 접근하여 사용하도록 디자인되었다. 국외의 제품 중에는 전면과 후면 양쪽에서 접근이 가능한 제품이 일부 있었으며 이 제품은 접근이 가능한 양쪽의 작업영역을 분리하는 동시에 별개 영역의 수납공간을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서랍형 filing 수납방법은 안의 내용물을 쉽게 꺼낼 수

있는 인출식이 55.0%로 고정식보다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외제품의 경우 선반식 file수납 구분 방법은 divider가 있는 경우가 25.0%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 divider+compressor+hanging folder frame이 같이 사용된 경우가 18.8%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랍식 file 수납 구분 방법은 국내·국외제품 모두 hanging folder frame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잡이는 국내제품의 경우 부착형이 75.0%로 가장 많았고, 본체와 일치형은 25.0%로 나타났다. 국외제품은 본체와 일치형이 63.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잡이 형태는 국내제품의 경우 쥐는 형(5)\*(그림2 참고)이 가장 많았고, 국외제품의 경우에는 표면에서 손잡이가 보이지 않는 형(1)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쥐는형(5)과 본체와 별도 부착된 매입형(7)이 많이 나타났다.

이를 마감재별로 비교해 보면, 목재나 solid 라미네이트인 경우 손잡이 형태가 쥐는 형이 가장 많았고 금속재의 경우에는 표면에 손잡이가 보이지 않는 형이 가장 많았다.

손잡이 위치는 국내·국외제품 모두 상부 중앙에 위치한 경우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잡이 색은 앞면이 목재나 solid 라미네이트인 경우 손잡이는 본체와 다른 색상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금속재의 경우에는 본체와 동일한 색상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손잡이 주조색은 국내·국외제품 모두 무채색 계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걸레받이의 경우 국내제품은 본체와 일치형이 가장 많았고, 국외제품의 경우는 걸레받이 대신 다리가 있어 open된 다리 밑부분을 패널로 가려주고, 그 뒤로 케이בל선을 감출 수 있는 복합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teral file의 이동성은 크기와 무게로 인해 없었으며 고정형으로서 국내는 대부분이 벽면에 위치하였으며 국외의 경우는 팀과 팀간의 구분 및 사무실의 동선을 유도하는 가구로써 사용되었다.

### 3-2. VERTICAL FILE의 디자인 특성

분석된 vertical file은 국내·국외 모두 중역용보다는 일반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치유형은 국내제품의 경우 벽면에 위치하는 형태가 가장 많았으며, 국외제품의 경우 국내와는 달리 간막이의 기능과 더불어 테이블과 멀지 않은 곳에 배치가 되어 있어 사용자의 편리성과 공간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제품의 경우 높이는 최소 727~최대1510mm범위로 제작되었으며 1360mm 높이의 제품이 가장 많았고, 깊이는 최소 450~800mm까지의 깊이로 제작되었으며 그 중 600mm 깊이의 제품이 가장 많았으며, 폭은 최소 420~837mm중에서500mm 폭의 제품이 가장 많았다.

국외 제품의 높이는 1470mm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깊이가 모두 710mm였고, 폭은 430mm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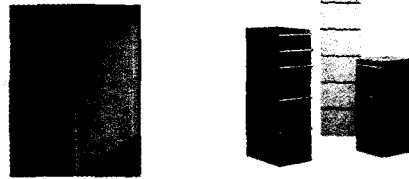
앞면은 모두 일치(flat)한 형태였으며, 국내제품의 상판은 본체와 일치형인 경우가 78.6%, 본체보다 앞으로 나온 형태가 21.4%로 나타났고, 국외제품은 모두 본체와 일치형

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판의 형태는 앞면이 목재인 경우 상판이 본체와 일치하거나 앞으로 나온 형태가 주로 사용되었으며, 금속재와 solid 라미네이트의 경우에는 본체와 일치하는 형태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모서리는 마감재와는 무관하게 상판과 옆면이 모두 직각으로 각이 진 형태가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색은 무채색 계열이 국내·국외수납가구가 각각 50.0%와 58.3%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국외

[그림 4] vertical file의 앞면 및 수납방법

앞면이 목재인 경우 노랑계열, 즉 메이플과 같은 밝은 색상의 나무색이 가장 많았고, 그 외 빨강과 주황(체리목)이 있었다. 금속재의 경우는 다양한 색상이 사용되었으며 유채색 보다는 주로 무채색 계열이 많이 사용되었다. 또한 solid 라미네이트의 경우는 주로 무채색 계열과 노랑계열이 주로 많이 사용되었다.

무채색을 사용한 경우 명도 단계는 국내제품의 경우 white가 57.1%로 가장 많았고, light gray가 42.6%로 많이 나타났다. 국외제품의 경우에는 dark gray가 42.9%로 가장 많았고, light gray와 black이 각각 28.6%로 나타났다. 이는 금속제인 경우 white와 dark-gray가 많았으며, solid 라미네이트의 경우에는 light gray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국내의 유채색 제품은 주로 tinted white, half-tone, dark-tone이 각각 28.6%로 가장 많았고, 국외제품의 경우는 half-tone과 dark-tone이 각각 40.0%로 많이 사용되었다.

국내제품의 경우 앞면, 옆면, 상판의 외부마감재 모두 solid 라미네이트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국외제품은 주로 금속재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잡이는 국내제품의 경우 부착형이 78.6%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국외제품의 경우에는 본체와 일치하는 손잡이가 58.3%로 부착형에 비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잡이 형태로는 국내제품은 쥐는 형(5)\*(그림2 참고)이 가장 많았고, 국외제품은 표면에서 손잡이가 보이지 않는 형(1)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마감재별로 비교해 보면, 목재인 경우 손잡이 형태가 쥐는 형이 가장 많았고 금속재의 경우에는 표면에 손잡이가 보이지 않는 형이 가장 많았다. solid 라미네이트의 경우에는 부분 돌출의 손잡이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손잡이 위치는 국내·국외제품 모두 상부 중앙에 위치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걸레받이는 국내제품의 경우 본체보다 안으로 들어가 있는 타입이 가장 많았고, 국외제품의 경우에는 본체와 일

치형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lateral file과 마찬가지로 걸레받이 대신 오픈된 다리 부분을 패널로 가려 주고, 그 뒤로 케이블 선(cable management)을 감출 수 있는 기능도 사용되고 있었다.

이동성과 융통성 및 조절 가능성 등은 없었으며 국내의 vertical file은 대부분이 벽면에 위치하는 것이었으며 대부분이 lateral file과 같은 위치에 있었다. 국외인 경우는 각 팀별 구분을 위한 간막이 역할과 더불어 각 개인의 자료 보관함으로써 사용하였으며 lateral file과 같은 위치에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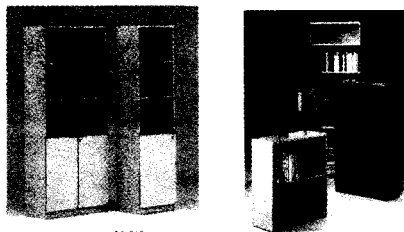
### 3-3. BOOKCASE의 디자인 특성

분석된 bookcase는 국내·외 제품 모두 일반용과 중역용이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배치유형은 국내·외 제품의 경우 벽면에 위치하는 형태가 가장 많았다.

국내제품의 경우 높이는 최소 789mm~2000mm 범위에서 1800mm가 가장 많았고, 깊이는 최소 350mm~626mm 중에서 400mm가 가장 많았고, 폭은 최소 500~2397mm 중에서 800mm가 38.5%로 가장 많았다.

국외제품의 경우에는 1080~2030mm의 높이를 사용하였고, 깊이는 최소 360mm~440mm의 범위에서 제작되었으며, 폭은 최소 760~1600mm 중에서 910mm가 60.0%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와 같이 국내·외 bookcase의 경우 모두 정해진 범위의 높이안에서 아래와 윗칸의 높이조절은 가능했지만, 전체높이의 조절은 불가능했다.

앞면 형태는 앞면 마감재의 재료와 상관없이 모두 flat한 형태가 많았으며, 국내제품은 상판이 본체보다 앞으로 나온 형태가 많았고, 국외제품은 본체와 일치하는 형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면이 목재인 경우 상판이 본체와 일치하는 형태가 많이 사용되었으나 금속재와 솔리드 라미네이트의 경우에는 앞으로 나온 형태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국내 국외  
[그림 5] 대표적인 bookcase의 앞면 형태

상판의 모서리는 국내·국외제품 모두 마감재와는 무관하게 직각 모양(1)이 가장 많았으며, 국내 제품의 경우, 전체가 rounding되어 있는 모양(4)도 많이 사용되었다.

Bookcase의 상하 단수는 3단이 가장 많았고, 각 단의 크기는 모두 동일한 제품이 65%로 가장 많이 조사되었다. 또한 좌우 칸수는 혼합형에서 1칸과 2칸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이 80%로 가장 많았고, 20%가 1칸으로 조사되었다.

주조색상으로는 국내제품의 금속재와 solid 라미네이트 경우에는 무채색 계열이 84.2%로 가장 많았고, 목재인 경우 노랑 계열이 30.3%, 빨강 계열이 18.2%, 주황 계열이 3.0%순으

로 나타났다. 국외제품의 경우에는 주황 계열과 무채색 계열이 33.3%로 같았고, 보라 계열도 11.1%로 나타났다.

무채색을 사용한 경우 명도 단계는 국내제품의 경우 light gray가 58.8%로 가장 많았고, black이 17.6로 많이 나타났다. 국외제품의 경우에는 dark gray가 66.7%로 가장 많았고, light gray가 33.3%로 나타났다.

채도단계는 국내의 유채색 제품의 경우 half-tone이 47.1%로 가장 많았고 dark-tone이 41.2%로 나타났다. 국외제품의 경우에는 dark-tone이 50.0%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마감재별로 비교해 보면, 앞면이 목재인 경우 half-tone과 dark-tone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solid 라미네이트의 경우에는 tinted white 색상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국내제품의 경우 앞면 외부마감재는 천연무늬목과 solid 라미네이트가 사용되었으며, 옆면과 상판의 외부마감재는 천연무늬목, solid 라미네이트 순으로 사용되었다.

국외제품의 경우 앞면은 주로 금속재와 천연무늬목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옆면은 금속재가 많았고, 상판은 앞면의 마감재와 같이 금속재, 천연무늬목, 그리고 라미네이트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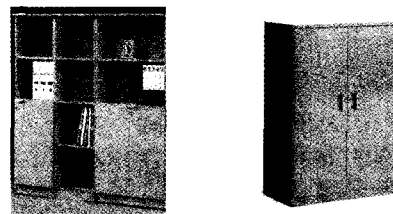
걸레받이는 국내제품의 경우 본체와 일치형이 48.5%로 가장 많았다. 이동성 및 복합기능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일부 제품의 경우 선반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정도의 사용상 융통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 3-4. CABINET의 디자인 특성

분석된 cabinet은 국내·국외제품 모두 중역용보다는 일반용으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치유형은 국내제품의 경우 벽면에 위치하는 형태가 가장 많았으며, 국외 제품은 팀과 팀간의 구분을 위한 형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제품의 경우 높이는 최소790mm~2300mm의 범위에서 1800mm 높이의 제품이 가장 많았고, 깊이는 최소 395mm~560mm의 범위에서 400mm 깊이의 제품이 가장 많았으며, 폭은 최소 420mm~2400mm의 범위에서 800mm 폭의 제품이 가장 많았다. 국외 제품의 경우 높이는 최소 720mm~2030mm의 범위에서 제작이 되고 있었으며, 깊이는 최소 360mm~600mm의 범위에서, 그리고 폭은 800mm, 900mm, 910mm, 2510mm의 4가지로 규정되어 그 중 910mm의 폭의 제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국외  
[그림 6] cabinet의 앞면형태 및 모서리의 예

앞면 상판의 형태는 국내·국외제품 모두 본체와 일치하는 형태가 많았다.

모서리 부분은 같이 국내·국외제품 모두 모서리가 직각으로 각이진 형태(1)\*(그림2 참고)가 대부분이며 이는 앞면 마감재와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조색상으로는 국내제품의 경우 무채색계열이 52.0%로 가장 많았고, 밝은 노랑계열이 26.0%로 많이 나타났으며 국외제품의 경우에는 무채색 계열이 50.0%로 가장 많았고, 주황계열 23.1%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채색을 사용한 경우 명도 단계는 light gray가 50.0%로 가장 많았고, white가 34.6%, black이 15.4%로 나타났으며, 국외제품에서는 light gray가 61.5%로 가장 많았고, dark gray가 23.1%로 많이 나타났다.

채도단계는 국내의 유채색 제품의 경우 half-tone이 37.5%로 가장 많았고, 국외제품은 dark-tone이 46.2%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금속재의 경우에는 pastel의 색상이 가장 많았고 solid 라미네이트의 경우에는 tinted white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국내제품의 경우 앞면, 옆면, 상판 모두 solid 라미네이트가 가장 많았고, 국외제품의 경우에는 주로 금속재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잡이 형태는 국내제품의 경우에 쥐는 형(5)\*(그림2 참고)이, 국외제품의 경우에는 본체와 별도 부착된 매입형(7)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앞면이 목재나 solid 라미네이트인 경우 손잡이 형태가 쥐는 형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목재, solid 라미네이트의 경우에는 손잡이 부착형이 많이 사용되었다. 또한 금속재의 경우에는 쥐는 형과 본체와 별도 부착된 매입형이 많이 사용되었다.

손잡이 위치는 국내·국외제품 모두 좌측 중앙에 위치한 경우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또한 손잡이 주조색은 국내·국외제품 모두 무채색 계열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앞면이 목재의 경우에는 금색과 은색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금속재와 solid 라미네이트의 경우에는 은색이 많이 사용되었다.

결레받이 형태는 국내·국외제품 모두 본체와 같은 색상과 본체와 일치형의 결레받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동성 및 조절가능성, 융통성 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3-5. OVERHEAD STORAGE의 디자인 특성

분석된 overhead storage는 국내·국외제품 모두 중역용보다는 일반용으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배치 유형은 국내·국외 모두 간막이에 부착하는 형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제품의 경우 높이는 최소 25mm(선반두께)~694mm의 범위에서 제작되었으며 그 중 선반형이 25mm~160mm로 35.4%로 나타났다. 깊이는 최소 180mm~500mm범위에서 320mm 깊이의 제품이 가장 많았다. 폭은 최소 761mm~1664mm의 범위에서 1200mm 폭의 제품이 63.2%로 가장 많았다. 국외제품의 경우 높이는 450mm 한가지만으로 나타났다. 깊이는 최소 350mm~440mm의 범위였으며, 폭은 최소 900mm~1830mm의 범위에서 제작되었다. 이는 간막이벽면에 부착이 되어야 하는 가구이므로 대부분의 overhead storage는 무게를 지탱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한단의 높이로 제작되었다.

앞면의 형태는 모두 flat한 형태였으며, 상판의 형태는 국내·국외제품 모두 본체와 일치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면이 목재나 금속재, solid 라미네이트, 천 등의 재료와 상관없이 모두 flat한 형태가 사용되었다.

모서리의 형태는 국내·국외제품 모두 마감재와는 무관하게 직각 모양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국외제품의 경우 그 외에 다양한 모서리 모양이 사용되었다.

주조색상으로는 국내제품의 경우 무채색 계열이 51.5%로 가장 많았고, 노랑 계열이 21.2%, 주황계열이 9.1%로 나타났다. 국외제품의 경우에는 무채색 계열과 주황 계열이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마감재별로 비교해 보면, 앞면이 목재인 경우 주황 계열이 가장 많았고, 금속재와 solid 라미네이트의 경우에는 유채색보다는 주로 무채색 계열이 많이 사용되었다.

무채색을 사용한 경우 명도단계는 국내제품은 light gray와 white가 41.2%로 가장 많았고, 국외제품에서는 white가 36.4%로 가장 많았고, light-gray와 black이 각각 27.3%로 나타났다. 채도단계는 국내의 유채색 제품의 경우 half-tone이 37.5%로 가장 많았고, pastel이 31.3%로 나타났다. 국외제품의 경우에는 dark-tone이 48.0%로 가장 많았고, half-tone이 20.0%, tinted-white가 16.0%, pastel이 12.0%, bright color가 4.0%로 채도 단계가 다양하게 나타나 생산되는 색의 가지 수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마감재별로 비교해 보면, 목재인 경우 dark-tone과 half-tone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solid 라미네이트의 경우에는 tinted-white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또한 천으로 마감한 경우에는 pastel이 많이 사용되었다.

국내제품의 경우 앞면과 상판 외부마감재는 solid 라미네이트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옆면은 solid 라미네이트와 금속재가 많이 사용되었다. 국외제품은 앞면, 옆면, 상판 모두 천연무늬목, solid 라미네이트, 금속재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국외  
[그림 7] open shelf과 receding door 의 형태

손잡이 형태는 국내·국외제품 모두 표면에 손잡이가 보이지 않는 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앞면이 목재, 금속재, solid 라미네이트, 천으로 마감한 경우 모두 손잡이 형태가 표면에 손잡이가 보이지 않는 형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손잡이 위치는 하부 중앙에 위치한 경우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손잡이 색은 앞면 마감재의 재료와 상관없이 국내·국외제품 모두 본체와 동일한 색을 사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앞면이 목재나 solid 라미네이트의 경우에는 본체와 다른 색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 3-6. PEDESTAL의 디자인 특성

분석된 pedestal은 국내·국외제품 모두 중역용보다는 일반



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Pedestal의 배치 유형은 국내·국외제품 모두 책상 뒤쪽에 위치하는 형태가 가장 많았고 국외 제품의 경우에는 책상 옆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제품의 경우 높이는 최소 400mm~최대 720mm의 범위에서 600mm가 가장 많이 생산되었고, 깊이는 최소 360mm~440mm범위에서 420mm가 가장 많았으며, 폭은 최소 455mm~900mm범위에서 560mm 폭의 제품이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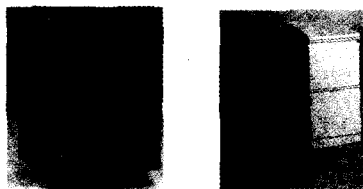
국외제품의 경우, 조사된 제품의 높이는 530, 670mm 두 가지만을 나타내고 있었고, 깊이는 300mm과 390mm 두 가지로 나타났다. 폭은 최소 510mm~760mm의 범위에서 제작되었으며, 그 중 760mm 폭의 제품이 가장 많았다.

앞면의 형태는 flat한 형태가 가장 많았으며, 상판의 형태는 국내·국외제품의 대부분이 본체와 일치형이 많았고, 마감재와는 무관하게 상판과 옆면의 모서리가 직각 모양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체가 rounding되어 있는 모양도 많이 나타났다.

색상으로는 국내·국외제품 모두 금속재의 경우에는 유채색보다는 무채색 계열이 가장 많았고, 목재인 경우는 노랑 계열이 많이 나타났다. 또한 solid 라미네이트의 경우에도 무채색 계열이 주로 많이 사용되었다. 무채색을 사용한 경우 명도 단계는 국내제품의 경우 light gray가 가장 많았고, 국외 제품의 경우에는 black이 가장 많았다. 채도단계는 국내의 유채색 제품의 경우 tinted white가 37.5%, pastel이 25.0%로 나타났다. 국외 제품은 tinted-white가 38.9%, half-tone이 27.8%, dark-tone, pastel이 각각 27.8%로 나타났다. 이를 마감재별로 비교해 보면, 앞면이 목재인 경우 half-tone과 dark-tone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금속재나 solid 라미네이트의 경우에는 tinted white와 pastel이 주로 사용되었다.

국내제품의 경우 앞면, 옆면, 상판 모두 solid 라미네이트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국외제품은 금속재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잡이는 국내제품의 경우 쥐는 형(5)의 부착형이 가장 많았고, 국외제품은 본체와 일치형이면서 표면에 손잡이가 보이지 않는 형(1)이 가장 많았다. 이를 마감재별로 비교해 보면, 앞면이 목재인 경우 손잡이가 부착형이 가장 많았고 solid 라미네이트 역시 모두 부착형의 형태가 사용되었다. 또한 금속재의 경우에는 본체와 일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손잡이 위치는 국내·국외제품 모두 상부 중앙에 위치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손잡이 색은 국내제품의 경우 본체와 다른 색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국외제품의 손잡이 색상은 본체와 동일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국내 국외  
[그림 8] 쥐는 형과 표면에 손잡이가 보이지 않는 매입형

손잡이 주조색은 국내·국외제품 모두 무채색 계열이 가장 많았으며, 은색, 노랑색이 무채색 계열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액센트 색으로 나타낼 수 있다.

걸레받이는 국내·국외제품 모두 특별히 걸레받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국내제품의 경우 다리가 부착된 경우가 29.2%, 국외제품의 경우는 본체보다 안으로 들어가 있는 타입이 32.4%로 나타났다.

pedestal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른 수납가구와 비교해서 이동성이 가능한 부분이다. 국내·외 제작된 대부분의 pedestal은 바퀴가 달려있어 때와 장소에 의한 이동이 자유로웠다. 또한 조사된 국외의 최근자료에는 서랍식의 바퀴가 달린 pedestal뿐만 아니라 디자인과 마감에 있어 사무실 안의 장식효과도 보여지고 있다. 기능적인 면과 미적인 면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4. 결론 및 제언

오늘날 우리는 고도로 정보화된 사회구조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수많은 정보속에서 컴퓨터나 사무기기에 의한 사무합리화가 우리생활에 널리 전파되었고 이에 따라 사무실 사용자의 육체적, 정신적 특성과 행동특성을 고려한 쾌적하고 효율성 있는 공간을 유지하며 사용자가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정보화 시대의 디자인 필수조건이라 생각된다. 즉, 정보화시대의 사무실 환경의 변화에 따른 수납가구의 디자인이 변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제작될 수납가구는 디자인의 조건들을 수용하여 미래의 사무환경에 대응할 새로운 디자인이 요구된다.

사무환경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가구디자인 특성으로 '융통성(flexibility)', '이동성(mobility)', '조절가능성(adaptability)', '복합기능성(multi-function)', '전시성(display)'의 조건을 갖춘 가구들이 요구되며, 수납가구의 경우 제한된 공간에서 최대한 활용을 유도하고 체계적인 수납체계와 함께 조직변화에 따라 조립이 간편하고, 이동이 편해야 하며, 색채는 다양한 색상의 개발이 필요하며, 가구의 위치는 조직 및 업무의 흐름에 맞는 곳에 배치되어야 하며 케이블 매니지먼트의 연결방법 등을 겸한 복합기능성의 수납가구가 요구된다.

또한 조직의 변화, 체계적인 수납등 사용상의 융통성을 위해 제품의 규격화가 요구된다.

이에 현재 시판되는 수납가구의 디자인 특성분석결과를 중심으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1. 수납가구의 배치 특성은 가구의 특성상 pedestal은 주로 책상 밑에 두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overhead storage를 칸막이에 부착하는 것은 국내·외가 같으나 그 외의 vertical file, lateral file, cabinet등은 국내의 경우는 벽면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국외의 경우는 팀간의 구분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개방형 사무실의 추세에서 사무실 내의 팀구분을 위해 칸막이가 아닌 가구가 이를 결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종래의 벽에 붙여 사용하는 가구의 일반적인 패턴에서 벗어나 벽에 붙여 배치하지 않고 팀간의 구획을 위한 배치는 사무 환경의 개방화와 주기가 짧아지는 조직 및 팀개편에 부합할 수 있는 사무환경의 대응에 대한 요구

로 해석되며 이를 위해 미관상이나 간막이로의 사용에 대응할 수 있는 수납가구 뒷면 디자인에 대한 배려가 요구된다. 수납가구의 뒷면이 간막이를 대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디자인될 경우 보통 간막이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수납가구, 즉, bin이나, 선반, 기타 수납용 악세서리의 탈착이 가능하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2. 현재 변화하는 사무환경에 맞춰 필요에 따라 위치를 변동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원활한 사무환경 조성이 요구되나 수납가구에서는 이동성 있는 수납가구가 적었다. 수납가구란 특성으로 인해 기존의 고정된 사용을 전제로 이동성부여가 적었으나 최근의 사무 환경 세팅의 변화를 자유롭게 수용하기 위해서는 가구 뒷면쪽에 바퀴를 부착하여 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등의 이동성을 부여한 수납가구의 개발이 요구된다.

3. 수납용 가구의 마감재로는 현재 사용하는 개인용 수납가구는 laminate(다양한 색상의 합성수지재료 부착)와 천연나무목, 금속재 순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공용수납가구에는 금속재와 laminate순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이와 같이 현재 많이 사용중인 철재수납가구의 사용을 높이기 위해 제품 개발시 천연 나무의 느낌을 내거나 이와 유사한 시각적 질감을 표현하는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4. 수납가구의 크기는 가구별로 다양하게 디자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경우 회사별로, 혹은 같은 회사에서도 다양한 크기로 제작되고 있으나 국외의 경우는 같은 회사의 제품은 제품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크기, 혹은 일정한 비율로 그 크기의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간의 입체적 사용 및 파일링 시스템의 구축 등 수납체계의 변화와 가구배치의 융통성을 위해 수납가구의 규격화 작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5. 앞면과 상판의 경우는 일치(flat)한 형태가 많았으며 상판의 형태는 대부분이 본체와 일치하는 형태였으며 모서리 처리는 각진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이것은 국내 국외 모두 철재 수납가구와 목재 수납가구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철재 수납가구 제작시 형태면에서 목재와 유사하게 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6. 수납가구에 사용된 색은 국내 가구의 경우 주로 무채색 계열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중간 명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 노랑계열이나 빨강계열의 색이 사용되었다. 국외가구의 경우는 무채색이 국내와 같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명도가 아주 높거나 낮은 단계를 사용하고 있어 같은 무채색이라도 사용의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가구에 비해 다양한 색상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무환경 디자인시 수납가구의 비중을 고려할 때 사무환경의 다양화를 위해 다양한 색상의 수납가구 개발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7. 수납가구에 사용한 손잡이의 형태는 국내의 경우 주로 부착형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그 색상과 다른 것이 사용되어 액센트 역할 또는 다양한 이미지 변화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의 경우는 주로 본체와 일치하는 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국내, 국외 수납가구 중 철제로 된 수납가구는 주로 본체와 일치하는 형태로 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철재 가구의 경우 본체에 매입된 형태의 손잡이 디자인이 일반적이긴 하나 목재제품과 같이 부착형 손잡이의 사

용으로 디자인상의 변화 유도를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8. 수납구분방법으로는 대부분이 선반과 서랍식으로 구분되었고, 서랍식인 경우 정해진 간막이와 물품보관함이 있었다. 특히 서랍식의 filing수납방법에서 서랍내부의 구획이 기존에 많이 사용되었던 A4용지 크기로 규격화가 되어 있었으나, 컴퓨터의 사용증가로 다양한 규격의 컴퓨터관련 사무용품이 사용하게 됨에 따라 수납가구 디자인시 서류뿐 아니라 다양한 규격의 컴퓨터관련 사무용품의 효율적인 수납이 가능하도록 한 간막이의 조절 기능성에 대한 배려와 함께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이밖에 서랍의 내부와 외부에서의 다양한 수납방법과 디자인 개발이 요구된다.

9. 첨단 정보화 시대의 사무실은 사무자동화 기기의 증가로 각 가구마다 연결되어 있는 복잡한 케이블선 연결방법이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이에 일반 데스크 및 간막이 벽면에는 케이블선을 보이지 않게 설치하고 이동하는데 정교하게 조직화될 수 있는 복합기능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것은 쾌적한 사무환경을 추구하는 현재의 오피스환경에서 필요한 시스템이므로 수납가구에도 이런 시스템을 수용하는 가구의 복합기능성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기존 수납가구의 외형적 디자인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었다. 수납가구와 관련된 업무특성, 사용자특성, 가구배치의 상관성, 업무동선을 고려한 수납가구의 디자인 조건 등과 관련된 디자인 특성 분석연구가 후속연구로 요구된다.

## 5. 참고문헌

- 민찬홍(1995). 후기산업사회의 오피스 변화에 관한 연구, 실내 디자인학회 논문집, 4호
- 송인호(1995). 오피스 환경디자인. 조형사
- 이종란(2001). 사회적 변화에 따른 사무실 실내환경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8호
- 신화경외(2000). 사무용 철재수납시스템 디자인개발. 사단법인 한국FM학회
- 한영호(2002). 실내디자인의 창의적 공간구성 방법에 관한 연구, 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30호
- Brandt, Peter B.(1992). Office Design. White Library of Design. N.Y.
- Kleeman, W. b.(1991). Interior Design of the Electronic Office: The Comfort and productivity Payoff. Van Nostrand Reihold. N.Y.
- Tweedy, D.B.(1986). Office Space Planning and Management. Quorum Books. Greenwood Press, INC.
- Zimmerman, Neal (1996). Home Office Design. Johnwiley & Sons, INC
- Woodson, Wesley E. , Barry Tillman, & Peggy Tillman.(1992) Human Factors Design Handbook. McGraw-Hill, Inc.
- www.teknion.com
- www.hermanmiller.com
- www.knoll.com
- www.steelcase.com